



한국 항만엔지니어링의 선구자 이환범 고문

- 방문일시 : 2011년 2월 22일 11:00분
- 장 소 : (주)대영엔지니어링 회장실
- 참 석 자 : 한국기술사회 이환범 고문, 강영승(해양) 홍보위원, 구수연 편집담당

한국기술사회 제19대(2004.03.01~2007.02.28) 회장을 역임하셨던 이환범 고문님은 항만및해안기술사로서 일생동안 수출입 기지인 항만현대화에 헌신한 분이시다. 1956년 교통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196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1964년부터 1965년까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국제수공학과정을 수료하였고, 1968년부터 1969년까지 프랑스 중앙수리시험소에서 항만수리모형실험을 연수하신 우리나라 항만 역사를 일구어 낸 전문가이시다. 건설부, 교통부, 해운항만청에 15년, 삼성종합건설(주) 기술상무이사 역임, 1980년 (주)대영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임직원 200여명의 엔지니어링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다. 2000년에 철탑훈장을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모범기업 표창을 받았다.

Q 재임 시에 기술사들의 숙원사항이었던 학·경력 기술자제도 폐지 등 기술사제도개선방안 마련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당시 기술사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시스템 부재,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기술자(특급기술자)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기술사 자격

의 실효성저하, 국제간 기술사 상호인정 체제 미비 등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중심으로 임원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술사제도개선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 관계관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기술

고문님께서서는 우리 회 회장으로 재임 시 “기술사제도개선방안(’04~’05)”마련, “기술사 고
유업무영역설정 36개과제(’05~’06)” 도출, 국제기준에 맞춘 “기술사법개정(’06~’07.1)”
등 기술사제도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사 제도개선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술사들의 숙명과제
로 남아있지만 제가 재임 시에 학·경력기술자제도
폐지 등 정부가 나서서 기술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
게 된 것은 퇴임을 한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2004년 당시 오명 과학기술부장관을 방
문해 기술사제도 바로세우기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박기영 대통령비서실정보과학기술보좌관,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을 만나 「특급기술자 제도개선」 등 기술
사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러한 기술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05년 11월 국무조정실외 9개 부처가 참여하여 기
술사 자격제도의 선진화, 기술사의 사회적·법적지위
와 책임강화 등을 목표로 기술사제도발전방안을 마련
하였고, 각 부처별 기술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
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 설립
치근거 및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근거마련, 국
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근거,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
사 계속교육제도 도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근거
마련 등을 기술사법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기술사
업무영역 및 벌칙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협의과정에서
완화 되었지만 기술사제도가 어느정도 개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기술사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기술사제도개신
을 요구하셨던데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기술사시험의 기술사법으로
의 이관을 통한 주관부서 일원화, 그리고 특급기술자

폐지를 요구해 기술사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활용
시책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지요.

그 결과 2002년 5월부터 시작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
기획단」의 우수 기술사 육성 활용방안 수립으로 열매
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인적
자원개발기획단에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설치하
고 2005년 11월 10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께 과학기
술부 최석식 차관과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보고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지요. 그에 바탕하여 1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 통보에 대한
시달이 있었지요. 그 이후 『기술사 제도개선 T/F팀』
을 구성하고 기술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기술사
고유 업역 설정을 위한 법령개정 협의를 진행했지요.

2004년 11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만기 국가과

기술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 첫째,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P.E)제도 확립·운영
- 기술사의 배움, 관리, 기술양성: 교육, 국가간 상호인정(APSC인지니어·EMF 국제등록기술사(KMPIC)) 지원·육성
등을 '기술사법'에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003년도 노동부 수석 'APSC영제-이과'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기술사제도는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자양')
- 둘째, 학·경력에 의한 특급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근본적 개선
- 기술사 시험에 요격한 기술사의 명확하게 구분
- 셋째 기술사 직무(기술사법 제3조)의 실요성 확보도 규정 보완
그나 다른 전문 자격제도와 법령상 융통성 유지
예: 설계·시공·감리 등의 업무에 기술사 실용제(책임기술사) 도입·보완

위 내용과 같이 기술사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1.

한국기술사회	최 경	총인양배원기술사	이행범
부회장	비피과검사기술사	허 남	
부회장	건설안전기술사	김광진	
부회장	건축시공기술사	염인준	
부회장	도로 및 공항기술사	오익진	
부회장	건축기공실비기술사	장창모	
부회장	토목시공기술사	한영관	
부회장	정보관리기술사	이길덕	
감 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안홍규	
감 사	건축구조기술사	전상백	

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기술사 3,007명의 서명부를 첨부해 기술사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Q 재임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35회 한일기술사심포지엄은 전주에서 열렸는데, 이 석 황손의 축사로 뜻깊었습니다. 그 때 저와 제 와이프는 이 석 황손의 배려로 전주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혼례가 치루어져 그 당시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매우 좋은 추억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아주 큰 낫그릇에 전주비빔밥을 여러사람들과 다 함께 비벼서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군요.



▲ 이 석 황손의 축사

또한 2005년에 한일기술사합동심포지엄에서 한일 양국 청년 기술사들의 친선 축구경기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언어장벽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통하는 대회를 열도록 노력하였지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마음 뿌듯해집니다.

Q 끝으로 기술사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있고 의미 있는 분야에서 많은 동료들께서 넓고 크게 활동하시는데, 우리나라를 안팎에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라지요. 그 가운데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확립을 강조하고 싶군요. 즉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넓고 넓은 밖에서 경쟁상대를 찾아야합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세계 곳곳에 건문을 넓히고 이해하는 안목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요. 시야를 조금만 밖으로 넓히면, 세계는 너무 넓습니다. 정말 세계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영어는 필수예요.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기술분야 심의는 기술사들이 참여했지요. 기술심의를 한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 기술사들은 각 분야의 기술습득 뿐만 아니라 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또한, 엔지니어링이란 스스로 자율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통제보다는 창의주도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기업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임을 강조하고 싶군요.



▲ 이한범 고문과 강영승 기술사